

“전통음악은 역사·삶·영혼을 이야기하는 거대한 힘”

■ 아시아문화전당 40개국 음원 콘텐츠 사업 활발

(주)디케이미디어 백승창(46) 감독은 최근 3년 동안 일본 아이누족의 퍼포먼스, 태국 전통 인형극 ‘훈 라 콘 렉’, 캄보디아 전통 무용 ‘암사라’ 등을 영글에 담았다. 브루나이와 몽골, 베트남의 전통음악 공연 모습도 촬영했다.

카메라에 담긴 각국의 노래와 음악은 ‘리듬과 멜로디의 발견을 넘어 각국의 역사와 삶 자연과 영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대한 힘이었다.

2014년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관객과 예술가들은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까. 아직 전당에 담긴 콘텐츠가 눈에 속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각국의 전통음악을 콘텐츠화하는 ‘아시아 전통음악 자원 개발 및 다류멘터리 제작 사업’은 일정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40여개국의 전통음악 음원과 영상, 이미지, 악보, 텍스트 자료를 아카이브 및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5곡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의 기획 아래 (주)디케이미디어

어가 제작을,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사업 관리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19일 서울 아문단 사무실에서 만난 (주)디케이미디어 박성미(42) 대표와 백승창 감독은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4~5년 후를 바라보는 미래형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힘들고 그만큼 도전의식도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주)디케이미디어

영상·이미지·악보 등 네트워크로 구축

현재 12개 나라 촬영 105곡 콘텐츠 개발

다류 극장 개봉 ... 다양한 수익창출 기대

디어는 HD다류 ‘미스터리 아시아 13부작’, ‘꼬치의 헬로 아시아 20부작’ 등 아시아 관련 촬영을 꾸준히 해온 아시아 전문 베테랑 제작사로 한국방송대상 등에서 여러차례 수상했다.

이번 프로젝트 첫해였던 2008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전통음악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주)디케이미디어 백승창·박성미씨와 장용석 전문위원. (왼쪽부터)

오테이프를 촬영했다.

“아이누족의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다소 꺼려하는 소재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어 촬영이 어려웠죠. 또 저작권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았구요. 제작 중간에 극장용으로 변화되면서 항공촬영을 추가하는 등 재촬영도 여러번 해야했습니다. 아이누는 문자가 없는 민족이라 소리나 노래로 의사 표현을 해요. 그런 점에서 민족에게 음악이라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였죠.”(박성미)

2009~2010년에는 태국, 캄보디아 등 7개국이 탐사대상이었다. 그중에서 다류로 제작된 것은 캄보디아 고

대 왕실 무용 ‘암사라’를 소재로 한 ‘캄보디아, 캄보디아’와 태국 전통인형극 ‘훈 라 콘 렉’을 소재로 한 ‘그림자’이다.

“태국에서는 전통인형극 배우들을 촬영했는데 그때가 태국 반정부 시위가 한창일 때였죠. 마침 공연장이 시위 현장의 한복판이어서 꽤 위험했죠.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통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백승창)

올해는 중앙아시아를 찾아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서 30여곡의 전통음악을 기록하게 된다. 5월부터는 키르기스스탄의 영웅 마나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나스치를 소재로 한 다류 제작에 나선다.

“외국 선교사의 사진이 없었던면 우리나라 근대를 소재로 한 다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가 기록해두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문화들이 10년 뒤, 100년 뒤 아시아 각국의 후손들에게 큰 재산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주가 사라져가는 그들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주가 기록해둔 ‘원형’을 가지고 많은 예술인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어 또 다른 것들을 재창조해내면 문화는 더욱 풍성해지겠죠.”(박성미)

제작된 콘텐츠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중이다. 아문단은 CJ CGV 무비플러스와 MOU를 체결, 지난해 아이누족의 퍼포먼스를 담은 다류 ‘당신은 아름답다’를 극장에서 상영했고 올해도 ‘캄보디아, 캄보디아!’ 등이 극장 개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덴마크에서 열리는 월드뮤직엑스포를 비롯, 국내외 영화제에 적극 출품할 계획이다. 또 전당 상주단체인 아시아 각국의 전통악기들로만 구성된 한·아세안 오케스트라에서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아문단 장용석(48) 위원은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공동한 파트너로 전통음악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이라며 “전당에 아카이브로 구축되고 음악제, 웹서비스 활용 등을 통해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음악으로 만나는

아시아



몽골 전통음악



브루나이 전통음악



일본 아이누족 전통음악



(주)디케이미디어가 태국의 전통음악 공연을 촬영중인 모습.

■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드는 사람들



박소진 주무관



전애실 전문관



정준민 교수



윤정섭 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게 해줄 대표 문화 공간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앞선 생각이 만들어 낼 다양한 콘텐츠와 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발품’이 중요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드는 전당 기구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

아문단 박소진(34) 전당기획과 주무관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을 두둑하게 해줄 ‘안방마님’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 후 민

박소진 주무관 - 전당의 공간 두둑하게 채울 ‘안방마님’

전애실 전문관 - 아시아예술극장 공연작품 발굴·개발

정준민 교수 - 문화정보원준비단 운영·정책 발굴 연구

윤정섭 교수 - 각국의 신화 민담 정리 스토리텔링 담당

간투자를 이끌어 내고, 전당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당의 연구·조사, 유통, 마케팅을 전담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설립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당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박 주무관은 “전당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문단 전당기획과 전애실(42) 전문관은 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아시아예술

극장을 담당하고 있다. 개관을 앞두고 전당 예술극장의 우수 공연작품을 발굴하고 개관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일을 한다.

최근에는 ‘공연예술 작품개발 계획안’ 국제 공모를 통해 전 세계 총 13개국 23개 도시에서 응모한 총 71편의 작품 중 최종 3편을 선정했고,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창작워크숍을 통해 개관작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씨는 다국적기업인 컴팩코리아(현 HP) 등에서 IT 기술과 국제교류 등을 맡아 국제 감각이 뛰어나고,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마케팅, 예술단운영팀장을 거치면서 문화예술 부

문의 실무 경력도 쌓은 인재다.

전당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아문단의 노력과 함께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정준민(55) 교수는 아시아문화정보원준비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전당의 유무형의 자원을 축적하고 정책을 발굴·연구하는 기구이다. 또 광주 예술의 거리에 전시관을 마련해 전당 건립 이전에 전시관 운영을 미리 경험하는 역할도 정 교수의 몫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미술과 윤정섭(45) 교수는 전당에서 공연되고 생산되는 문화의 원천이 될 스토리텔링을담당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신화·민담을 정리해 이를 근간으로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일을 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행복을 설계하는

금융플래너,

새마을금고와 함께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경제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고객의 자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고객님의 행복을 설계하세요

MG 새마을금고